

# 두레

함께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마을운동

Magazine

2026 05+06  
vol.26

## 새벽종

새벽종

2026 05+06 vol.26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26  
ISSN 2799-9343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마을운동의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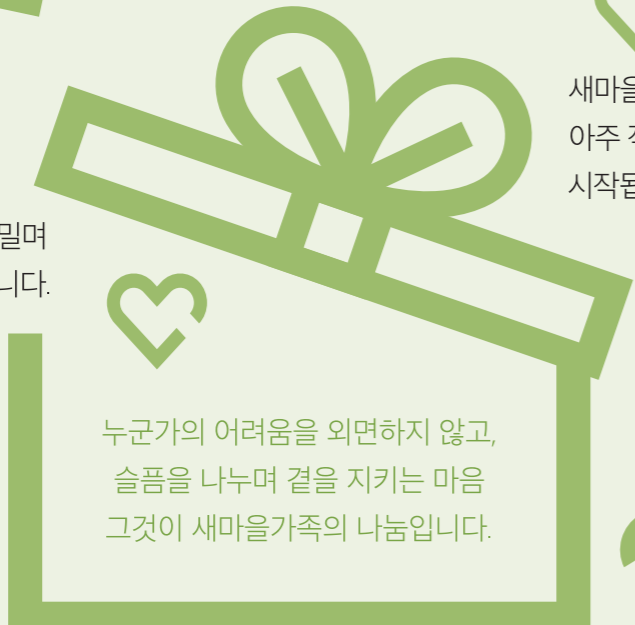


내일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나눔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이웃의 하루에 온기를 더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을 나누며 곁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새마을가족의 나눔입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가  
내일의 희망이 되고, 작은 나눔들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https://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xnT](https://pf.kakao.com/_zNxkxnT)



# CONTENTS

2026 05+06  
Vol.26

새벽을

열다

- 06 새마을-ing  
① 이재명 대통령, “새마을운동, 대한민국 근대화 큰 역할… 지금도 매우 유용”  
② 200만 회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56년을 열다
- 14 함께 만든 세상  
에너지 절약 전국 동시 캠페인 선포식 현장
- 18 지구촌새마을 속으로  
짐바브웨, 새마을운동으로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다
- 20 초록빛 동화  
나눔으로 꽃피는 동네,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 22 빛나는 사람들  
함께라 더욱 빛나는 새마을



## Cover Story

나눔은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건네는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을 위한 반찬 한 그릇,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손길, 함께하는 시간이 모여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어질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오늘도 새마을운동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일구다

- 24 우리동네 새마을 ①  
전남 목포시부녀회
- 28 우리동네 새마을 ②  
울산 남구부녀회 & 직장·공장협의회
- 32 청년, 새마을하다  
청년, 새마을의 새로운 좌표를 그리다
- 36 새마을을 만나다  
봉사로 세상을 배우는 모녀의 따뜻한 성장기

내일을

꿈꾸다

- 40 그 노래, 그 길  
수국 향기 따라 흐르는 고래의 노래
- 44 생활 백서  
꽃가루 알레르기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 46 새마을 브리핑
- 58 새마을 라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 이재명 대통령, “새마을운동, 대한민국 근대화 큰 역할... 지금도 매우 유용”



역대 대통령 첫 공식 방문, “가장 낮은 자세로 공동체 지켜낸 실질적 힘” 극찬

지난 5월 14일,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적을 일궈낸 새마을운동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이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특정 진영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뜻깊은 자리였다. 전국에서 70여 명의 새마을회장단과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뛰는 새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1시간여 동안의 간담회는 뜨거운 자부심과 격정적인 혁신의 에너지가 가득했다.

글 편집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 “가장 낮은 자세의 헌신” 진영 논리 흔들림 없는 당당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새마을 가족들의 가슴을 울리는 최고의 헌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는 봉사단체 중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는 곳이 새마을이 아닐까 한다”라며,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여러분의 헌신은 공동체를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라고 치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정면으로 재평가하며 전국 새마을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 분명하다”라고 확언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많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해달라”고 격려해 현장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 “모래가 콘크리트 되듯” 실용과 통합으로 위기 정면 돌파



이 대통령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새마을운동이 가진 ‘통합의 유전자’가 국가적 위기 극복의 열쇠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모래만으로는 그저 모래더미에 불과하지만, 자갈과 시멘트, 물이 더해지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된다”는 비유를 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용과 통합을 최우선 해야 할 시기임을 천명했다.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국민 통합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거 ‘전 국민 잘 살기’를 목표로 땀 흘렸던 새마을운동의 본질과 완벽히 결을 같이했다.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 전 세계 수많은 개도국들이 앞다투어 새마을운동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새마을의 공동체 정신이 실천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지시' 화답  
글로벌 브랜드로 진화하는 새마을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격려의 자리를 넘어,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이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적 변화에 맞서 목표와 추진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K-민주주의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청년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 및 AI·디지털 행정 체계 전환을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다. 또한, 2030년까지 외국인 연수 규모와 해외 시범마을 조성을 확대해 코이카(KOICA),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즉각 지시'로 화답하며 새마을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실었다. 임채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청년들의 중장기 해외 봉사 활성화를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6개월, 1년 정도 장기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전인주 청도군새마을회 회장이 재활용품 모으기로 수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자 "다른 지역에서 잘 따라하면 좋겠다"라고 독려했다. 특히 주우간다 한국 대사를 지낸 박종대 연세대학교 교수가 "새마을 브랜드로 농촌 개발 ODA를 추진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제안하자 즉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저개발 국가의 농업 지역 개발 ODA 기획을 통합적으로 고민해 보라"며 전격적인 구조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냉 출신 유학생 호논 씨가 개도국 지도자들의 한국 성공 사례 견학 기회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나 정부에 공식 초청을 하든, 방법을 알아보라"며 아낌없는 지지와 화답을 보냈다.

사투리 정정으로 번진 폭소  
"과거 머물지 말고 미래로 진화하라"



진지한 정책 논의 속에서도 특유의 소통 리더십으로 간담회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백옥자 부산시새마을회 회장이 민간 밀착형 생명안전망 구축 계획을 설명하면서 '업·면·동'이라고 정감 어린 사투리 발음을 쓰자 이 대통령이 "업면 동이 아니고 읍면동!"이라고 유쾌하게 정정해 좌중을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공동체 회복,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찬란한 기적을 일궈냈던 새마을운동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세대와 진영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공동체 정신의 상징으로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운동으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 200만 회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56년을 열다

새마을운동 56주년,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4월 22일 오후 2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 문이 열렸다. 전국에서 달려온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단체 장들,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 22개국 외국 대사와 외교관, 연수를 위해 찾아온 해외 초청 연수생까지 55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 세대도 국적도 달랐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박중희 사진 김병구



서는 전라남도 무안군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단체 대표들이 나란히 무대에 서서 상패와 꽃다발을 받아 드는 모습에는 한 해 동안 전국 현장을 묵묵히 떠받쳐 온 조직의 땀과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 56년의 뿌리 위에서 새로운 길을 묻다

시상이 모두 마무리되고, 김광림 중앙회장이 기념사를 위해 다시 무대에 섰다. 그의 말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의 시대정신은 오직 하나, ‘잘살아 보자’라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으로 꽃피어 농촌과 도시를 깨우고 국가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흔여섯이 되신 1세대 하사용 지도자부터 이제 갓 스

물을 넘긴 대학생 청년까지, 전 세대가 한자리에 어우러진 오늘의 모습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동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흔넷의 연세에도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유혁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직접 소개하며, 초창기 새마을운동을 일궈 낸 선배들의 정신이 오늘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어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극심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공동체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현실을 짚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시했다. 전국에 촘촘히 뿌리내린 새마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의 숨은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으로 연결함으로써 사람이 찾아오는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가는 구상이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풀어 가는

### 56년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본식에 앞서 성남미금초등학교 금빛물결합창단 40명이 무대에 올랐다. 2023년 창단 이후 크고 작은 무대를 거처온 팀답게, 작은 어깨와 맑은 눈빛이 빛어낸 하모니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새마을가족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축하공연이 끝나자 유공자 시상이 이어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각 분야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이름이 불렸다. 이어 김광림 중앙회장이 새마을회장과 새마을기념장을 수여했다.

이날 새마을회장을 받은 이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중대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도현 교수이다. 두 사람 모두 새마을운동의 뿌리를 학문으로 붙들고 그 가치를 세계로 넓혀온 이들이다. 김광림 회장이 한 사람씩 목에 휘장을 직접 걸어주는 순간 객석에서는 오래도록 박수가 쏟아졌다.

새마을기념장은 30년 이상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강당 안에는 박수가 넘실거렸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알고 있었다.

2025년도 전국 시도·시군구 종합평가 시상도 이어졌다. 시도 부문에서는 전라남도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시군구 부문에



200만 회원 에너지 절약 실천 다짐



성남미금초등학교 금빛물결합창단

과정에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 변화가 경제와 문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기도 했다.

김광림 중앙회장은 새마을운동이 나아가갈 세 가지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K-민주주의 국민 참여를 넓히는 '참여형 새마을운동',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현장형 새마을운동', 농촌진흥청·코이카(KOICA) 등과 협력해 우리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그것이다. 여기에 AI와 디지털 혁신을 더 하고, 청년이 주도하며 마을기업으로 자립하는 기반을 갖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꾸준한 실천까지 함께 담아낸다면, 새마을운동은 지나간 유산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가장 힘 있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으로 전해온 응원

기념사에 이어 짐바브웨 모니카 무츠방와 여성·지역사회·중소 기업개발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상영됐다. 짐바브웨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개 마을에서 새마을 시범사업을 함께 이어갈 나라다. 화면 너머에서 전해진 목소리에는 새마을정신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수십 년 전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지구 반대편의 마을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마을운동의 힘을 돌아보게 했다.

잠비아 샤쿨리아 마을에서 온 애그니스 니렌다는 “이번 기념식이 새마을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탄자니아 간도 마을의 살롬 므위니 주메는 “마을의 변화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국내 풀뿌리 운동을 넘어, 지구촌 빈곤 극복과 지역 개발을 이끄는 세계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선포! 200만의 이름을 화면에 새기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는 전국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 선포식이었다. 주제는 ‘200만 새마을가족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의 이정표였다. 김광림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중앙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장, 최형재 사무총장, 전국대학 새마을연합회장,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 해외 연수생 대표까지 모두가 무대 위에 나란히 섰다. 서명 퍼포먼스를 차례로 마친 뒤 카운트다운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 숫자가 천천히 200만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강당 안의 숨소리마저 잦아들었다.

“하나, 둘, 셋, 선포!”

버튼이 눌리는 순간 ‘2,000,000’이라는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대강당은 함성과 박수로 들썩였다. 불과 얼마 전 회원 수가 117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쌓아 올린 살아 있는 증거였다.

선포식이 끝난 뒤 금빛물결합창단 아이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 내빈들과 함께 새마을 노래를 제창했다. 초창기 새마을정신을 온몸으로 살아온 지도자들의 목소리와 그 정신을 처음 배워가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그 울림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는 동안 새마을이 걸어온 56년과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졌다.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실천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반드시 더욱 눈부실 것입니다.” 김광림 회장의 기념사 한 구절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는 하루였다.

### ‘새마을의 날’ 알아보기

2011년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제정하였다.

#### 새벽중 퀴즈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영상 축사를 보내온 국가는 어디일까요?

- ① 미국 ② 독일 ③ 짐바브웨



QR코드를 스캔한 후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interview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새마을회장을 수상한 박종대 교수와 한도현 교수를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박종대 교수(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번 새마을회장 수상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두고, 빠지게 된 것은 2011년 우간다 공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입니다. 부임 후 제반 상황을 파악하면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가장 가성비 높은 한국의 개발 협력 콘텐츠로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외교자산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운동의 기여자라기보다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외교부 정년퇴직 후에도 새마을운동성과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면서 지구촌새마을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이렇게 새마을회장까지 수상하게 되어 아주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원리는 70, 80년대에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서 높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마을운동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사례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개도국, 선진국을 망라하고 모든 나라에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 맞게 계속 적용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도현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새마을회장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연구하며 학자로 성장해 온 사람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히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은 공동체운동, 환경운동, 재난구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의미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공무원은 물론, 세계은행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한국 사회는 저성장, 저출생, 청년실업, 사회갈등,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만 새마을회원이 취약계층 돌봄, 지역사회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주제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마을운동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국내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에너지 절약 전국 동시 캠페인 선포식 현장

마치 초여름처럼 뜨거운 날이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녹색 조끼를 걸친 새마을회원들이 광화문광장으로 삼삼 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한 '에너지 절약 전국 동시 캠페인' 선포식이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졌다.

글 황정은 사진 김병구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거리 캠페인



새마을운동의 시도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중앙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와 협력해 차량 2부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에너지 절감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일상에서 실천이 가능한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경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연계한 내부 실천 과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TF팀은 각 지역 조직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에너지 절약 실적을 취합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공유는 지역 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며 더욱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새마을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체계적인 실행과 점검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에너지 절약의 다짐을 안고

중앙회는 4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에너지 절약 전국 동시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며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 임직원과 서울시 새마을회 지도자 및 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생활 속 실천 수칙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윤종희 서울시협의회장과 조동희 서울시부녀회장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문을 낭독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들이 발표한 약속문에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겨 있어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약속문은 가정과 상가에서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밤 10시 이후 소등 운동 전개, 승용차 함께 타기 및 차량 요일제 참여,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약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장바구니 이용, 심야시간 간판 및 광고등 소등 홍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멀티탭을 활용한 대기전력 차단 등 구체적인 실천 수칙도 제시됐다. 더불어 절약형 소비 생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

## 새마을조직 비상경제 대응 계획 시행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소비 절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새마을조직 비상경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됐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김광림 중앙회장은 “에너지 위기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극복이 가능하다”라며, “과거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듯 200만 새마을가족이 앞장서 자원 안보 위기를 극복하자”라며 독려했다.

### 소박하지만 단단한 약속

캠페인에 참가한 회원들은 생활 속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3대 수칙을 중심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심야 간판 등 끄기, 계단 이용, 대기전력 차단, 절약형 소비 생활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구호로 전달되며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거창하지 않지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은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도 높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열정도 돋보였다.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도착해 준비에 나선 천진미 양천구 신월4동부녀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배운 실천 수칙들을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각자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황이선 도봉구지회장 역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범국민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현장 곳곳에서는 회원간의 격려와 연대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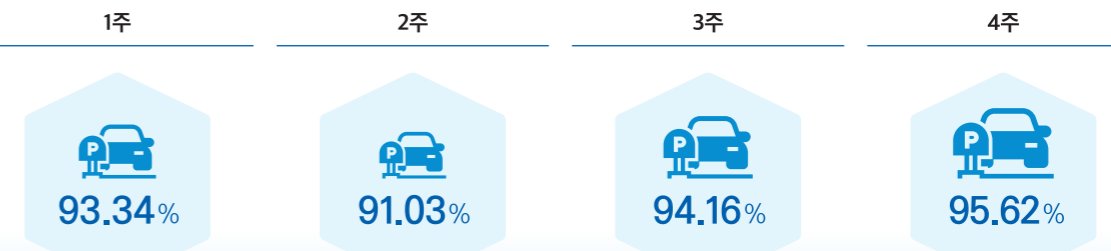
오후 3시 30분, 캠페인은 질서 있게 마무리되었다. 각 구역 조장이 어깨띠와 피켓, 현수막을 정리해 반납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준비된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진 활동이었지만 현장에는 끝까지 밝은 표정과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오가는 수많은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의 메시지가 깊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참가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오늘의 다짐을 잊지 말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뜨거운 4월의 햇살 아래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실천의 약속이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새마을운동의 에너지 절약 실적 보고서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추진 실적으로 총 161,025명(시도 18개소, 시군구 228개소)이 참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에너지 절약 운동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차량 부제 운영 실적



중앙회 / 시도지부에서는 2부제를 시·군·구 / 읍·면·동에서는 5부제를 운영하였다.

### 청사·시설 에너지 절감 실적

구분	1주	2주	3주	4주
조명 절감 사무실 50% 소등 (격등 운영)	801가구	3,264가구	3,063가구	3,604가구
상가	186개소	581개소	620개소	624개소

###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캠페인 유형	1주	2주	3주	4주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323회 5,234명	690회 10,775명	729회 9,946명	720회 6,242명
생필품·유류 사재기 금지	12회 277명	26회 439명	51회 177명	22회 139명
에너지 안보 의식 고취 홍보	135회 1,428명 11,381개	266회 3,306명 13,959개	234회 2,581명 7,149개	231회 1,774명 5,958개
온라인 (SNS 포스팅 건수)	756회 19,541명	1,268회 28,187명	1,183회 31,785명	1,046회 31,604명
교육 (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	47회 1,185명	57회 1,602명	52회 1,258명	51회 1,042명

# 짐바브웨, 새마을운동으로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다

타리로 치페페라(Tariro Chiopera) 여성·지역사회·중소기업개발부 지역개발국장  
이노센트 난디마(Innocent Nyandima) 마코니 군 빌리지 42 마을지도자



이노센트 난디마  
Innocent Nyandima

타리로 치페페라  
Tariro Chiopera

아프리카 남부 짐바브웨 마니카랜드 주 마코니 군 5개 시범마을에 새마을운동의 씨앗이 뿌려졌다. 가뭄과 빈곤이라는 오랜 숙제를 안고 살아온 주민들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변화를 꿈꾼다. 한국에서의 2주간 초청 연수를 마치고 고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두 연수생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박종희 사진 홍승진

**Q. 새마을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타리로 치페페라** |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여러 개발사업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본질을 자세히 배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노센트 난디마** | 처음 접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마을 전체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Q. 짐바브웨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리로 치페페라** |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아무도 뒤를 남겨두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라는 국가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천 방안으로 새마을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강조하는 의식 개혁이 국가개발 전략과 결합한다면 큰 변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이노센트 난디마** | 제가 사는 마을은 기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프라 개선도 시급하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서로 힘을 모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Q. 새마을운동을 통해 짐바브웨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길 희망하시나요?**

**타리로 치페페라** | 새마을운동을 통해 소득 증대가 가장 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노센트 난디마** | 지역사회가 더 현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현대화되면 교육도 더 잘 받는 지역사회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Q. 이번 초청 연수 중 인상 깊었던 강의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타리로 치페페라** | 마을 총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운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이 참석해서 합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절차를 배웠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강의였습니다.

**이노센트 난디마** |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새마을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강의였습니다. '한국도 해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Q.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타리로 치페페라** | 개인적인 마음가짐과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태도, 두 가지 모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공동의 힘으로 공동체에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고민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노센트 난디마** | 생각이 크게 바뀌었고 모든 시작은 나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마을에서 좀 더 현실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Q.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타리로 치페페라** | 많은 원조 사업이 자금 지원에서 끝나지만 새마을운동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스스로 마을을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키워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특별한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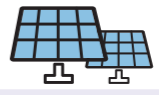

**이노센트 난디마** |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새마을운동 같은 지역 개발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륙에 비해서 개발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귀국 후, 시범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인가요?**

**타리로 치페페라** | 단기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의 미팅이나 캠페인, 교육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리더들에게 새마을 정신 교육을 시행하여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길을 포장하는 등 더 큰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노센트 난디마** |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커뮤니티에 알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짐바브웨는 땅이 매우 비옥한 편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짐바브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

 <b>대상 지역</b> 마니카랜드주 마코니 군 5개 마을 (Village 32, 42, 43, 44, 49)	 <b>주요 과제</b> 농업용수 부족, 식수 문제, 열악한 교육환경, 보건시설 부족
 <b>추진 계획</b> 태양광 기반 관개시설, 교육센터 건립, 가뭄 저항성 옥수수 품종 보급	 <b>기대 효과</b> 농업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마을 인프라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나눔으로 꽃피는 동네,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새마을가족의 따뜻한 진심이 우리 곁의 소중한 이웃들을 살피고 일상  
에 포근한 온기를 더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피어  
나는 곳, 새마을의 아름다운 동행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림 박경인

## 사랑의 밑반찬 나눔

정성으로 버무린 밑반찬 속에 이웃을 향한 진심을  
담습니다. 따뜻한 한 끼로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  
우리 마을의 온기를 더 깊게 이어갑니다.



## 감사의 효 편지쓰기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한 자 한 자 정성껏 눌러 적어봅니다.



## 공경의 족욕 봉사

조심스레 발을 어루만지는 손길에  
존경과 어르신인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 함께라 더욱 빛나는 새마을

## 새마을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격려

지역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새마을가족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새마을가족에게 격려를 전합니다.



**홍우진**  
이북5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이북5도새마을회는 언제나 '함께'라는 이름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내일을 밝힙니다.



**박종훈**  
전남 보성군 청년새마을연대회장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지역, 마음과 마음을 잇는 협력하는 봉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새마을가족들을 응원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들여다보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마음만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새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정창숙**  
울산 남구 달동부녀회장  
항상 웃으며 즐겁게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힘든 봉사 속에서도 봉사자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더 따뜻한 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새마을 파이팅!



**안숙연**  
전남 목포시 하당동부녀회원  
함께하는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하당동부녀회 가족들의 헌신이 있어 참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당동부녀회 파이팅!



**박성아**  
전남 목포시 하당동부녀회원  
술선수범을 바탕으로 봉사의 즐거움을 즐기며, 봉사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당동부녀회 파이팅!

# 고맙습니다



**이남윤**  
부산 청년새마을연합회장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오신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삶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그 고귀한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변화를 청년새마을연대가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일**  
직장·공장 울산 남구협의회원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따뜻한 마을을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 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참여가 곧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늘 임하겠습니다.



# “다음 달에도 또 오세요”, 5년 동안 이어온 약속

## 전남 목포시부녀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아침,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편에는 일찍부터 분주한 손길들이 모인다. 커트보를 가지런히 펴고, 가위와 빗을 꺼내 놓고, 이용자들을 맞이할 자리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사람들. 복지관 문이 열리면 그 자리를 기다려온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사각사각 가위 소리와 함께 소소한 안부가 오간다. 돌아서는 길에 봉사자의 손에 사탕을 쥐여 주며 건네는 한마디. “다음 달에도 꼭 와요.” 이 작은 약속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당동부녀회의 ‘사랑의 가위손’은 목포시부녀회가 골목골목에서 이어온 약속의 한 장면이다.

글 박종희 사진 전경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사랑의 가위손 봉사 현장

### 목포의 안부를 묻고 살림을 챙기는 사람들

목포시부녀회는 23개 동, 630개 통, 802명의 지도자가 빠짐 없이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조직이다. 이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어르신과 복지시설 배식 봉사, 취약계층 가정 반찬 나눔이 특별한 행사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다. 여름이면 열무김치와 삼계탕을, 겨울이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이웃의 식탁에 올린다. 안심이부녀순찰대 활동으로 골목의 밤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목포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 보이지 않는 자리를 채운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기 동네를 살피고 돌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나눔의 방식도 남다르다. 2025년 3R 자원재활용품 헌 옷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54톤에 달하는 헌 옷을 수거했고, 이 수익금은 다시 이웃을 돕는 재원으로 쓰인다. 버려질 뻔한 옷들이 따뜻한 밥상과 김장김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받는 나눔이 아닌, 지역 안에서 스스로 순환하는 나눔을 만들어온 것이 목포시부녀회의 힘이다.

그 활동이 하나의 봉사로 꽃핀 곳이 바로 하당동이다.

하당동부녀회 김수정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미용 봉사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관내 미용실을 한 곳씩 찾아다니며 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선 길이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뜻을 이해하는 원장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각자 바쁜 일정을 쪼개어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손길이 모여면서 지금의 ‘사랑의 가위손’이 자리를 잡았다.

### 가위를 든 손, 커트보를 펴는 손

봉사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9시,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새마을회원으로 영입된 현직 미용실 원장들이 커트와 시술을 맡고, 부녀회원들이 안내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매회 30~50명의 복지관 이용자가 이 자리를 찾는다. 봉사팀이 들어서면 복지관 안은 금세 활기를 띤다. 이용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부녀회원들이 능숙하게 커트보를 두르고, 원장들은 사각



5년의 시간을 함께한 부녀회원들

사각 가위를 움직이며 손질을 시작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라는 짧은 인사가 오가는 사이, 거울 속 달라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수줍게 웃는 얼굴도 보인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를 손으로 한 번 쓸어 넘기고는 “한결 가볍다”라며 밝은 얼굴로 자리를 일어서는 모습이 이어진다.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를 받는 사람도 모두 환한 얼굴이다. 봉사가 끝나도 이용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준비해 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다음 달 약속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이 자리의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됐다.

김 회장은 복지관 이용자들로부터 봉사 날을 기다렸다는 말을 들을 때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한다. “머리를 잘라드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분들이 기다려줍니다. 집에서 시를 써서 가져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손 글씨를 받아 드는 순간 오히려 제가 더 큰 마음을 받은 것 같았어요.”

참여 원장들의 헌신도 조용하지만 깊다. 이른 아침 봉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미용실로 달려가야 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5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봉사 운영 역시 별도의 보조금 없이 부녀회 자체 회비와 기금, 원장들이 직접



챙겨오는 미용 물품으로 꾸러진다.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 보태고 나누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됐다. 목포시부녀회 전선미 회장도 매년 현장을 직접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한다. 하당동부녀회의 작은 봉사 뒤에는 목포시부녀회 전체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

### 다음 달에도 꼭 와요

이 봉사를 5년간 이어오게 한 힘은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마음이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집에서 미리 시를 써서 고이 접어 온 이용자가 수줍게 손 글씨를 건네던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는 말이 필요 없었다. 머리를 말끔히 다듬고 환하게 웃는 얼굴, 돌아서는 길에 손에 쥐여 주는 사탕 한 알. 그 사소한 장면들이 쌓여 5년이 됐다.

머리를 자르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는 단순한 이·미용 봉사를 넘어 서로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나누는 관계의 자리였다. 고령화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런 손길이 닿는 자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된다.

목포시부녀회가 23개 동에서 이어가는 활동들이 그렇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달라지지만,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골목 어귀에서, 복지관 한편에서,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있어 주는 일. 그 자리에는 늘 웃음이 있고, 사람의 온기가 있다.

“우리 부녀회 지도자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각자의 동네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23개 동 어디서든 이웃이 어렵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 부녀회거든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봉사로 목포를 조금 더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선미 회장을 비롯한 802명의 지도자는 “새마을부녀회가 있어 참 든든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동력 삼아 앞으로도 쉬 없이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늘도 목포시부녀회는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

### 3R 자원재활용품(현옷) 모으기 경진대회



부녀회 지도자, 동 직원 등 200명이 함께 협심하여 54톤의 현옷을 수거하였다. 현옷 판매 수익금은 이웃 사랑 실천에 사용되어 지역사회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 안심이부녀순찰대



500명의 부녀회 회원이 참여하여 동별·지구대별 순찰 활동을 진행하였다. 안심이부녀순찰대는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위한 새마을의 밥심

울산 남구부녀회 & 직장·공장협의회



## 한 끼에 담긴 새마을의 온정

오전 9시,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던 시각. 울산 도산노인복지관 3층 급식실 문을 열자, 경쾌한 도마 소리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먼저 마중을 나왔다. 이미 한참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재료를 다듬던 남구부녀회 회원들은 머리에 두건을 단정히

두르고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여맨 채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무와 사과가 나박나박 썰려 나갔고, 옆에서는 청경채를 다듬어 소쿠리에 차곡차곡 담았다. 대화는 적었지만 손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마다

울산 남구새마을회 새마을가족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한 봉사를 이어가며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2025년도 전국 시군 구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10년 넘게 한결같이 급식 봉사를 이어온 부녀회와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온 직장·공장협의회의 협력이 있다. 2014년부터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빠짐없이 이어져 온 봉사 현장. 경쾌한 도마 소리가 울리는 이른 아침, 회원들은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글 장희주 사진 홍민기

제자리를 찾아 물 흐르듯 움직이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함께 맞춰온 부녀회의 단단한 호흡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의 메뉴는 미역국과 백미밥, 생선가스, 청경채무침, 배추김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차려낸 따뜻한 한 상이었다. 큰 솥에서 미역국이 구수하게 끓어오르고 생선가스가 노릇하게 튀겨지는 사이, 직장·공장협의회 회원들이 부녀회 곁에서 든든한 손길을 보탤다. 배식 준비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이들의 손을 거쳐 식판 위에 밥과 국,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맞이할 자리가 정성으로 채워졌다.

점심식사가 시작되는 11시 30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주방 안에서는 부녀회 회원들이 분주히 음식을 담아내고, 홀에서는 직장·공장협의회 회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숟가락과 젓가락을 쥐여드리며 자리를 안내했다. 식판을 직접 테이블 위까지 날라 드리는 것도 이곳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천천히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급식실 안을 포근하게 채우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앉은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준비된 한 끼가 조용히 놓였다. 단순한 한 끼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한결같이 이어온 회원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풍경

부녀회가 급식 봉사를 시작한 건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지금 우리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물음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배식준비를 하는 부녀회원들

시작됐다. 고민 끝에 찾아낸 답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식사'였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왕 시작했으니 오래 가자'는 다짐은 말뿐이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급식실 문을 열어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2023년부터는 직장·공장협의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봉사의 모습은 한층 단단해졌다. 부녀회 14개 동, 300여 명의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조리과 반찬 배분, 마무리 정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장·공장협의회는 배식과 현장 지원을 맡아 힘을 보탠다. 기업인,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시간을 내어



따뜻한 한 끼를 위한 재료 준비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자'라는 공감대다.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마음을 모아 손발을 맞추면서 따뜻한 한 끼를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은 단순하다. 최인순 부녀회장은 "급식 봉사가 힘은 들지만, 어르신들이 '잘 먹고 간다'고 하며 웃음을 보여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손효택 직장·공장협의회장도 같은 마음이다. 그는 "새마을 같은 단체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이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이 치유된다고 하신다. 어르신들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더욱이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짧은 인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 게다가 '여기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라는 어르신들의 한마디는 급식 봉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

### 늘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이웃, 울산 남구새마을회

급식 봉사는 부녀회와 직장·공장협의회가 속한 울산 남구새마을회가 이어온 수많은 활동 중 하나다. 2025년 한 해만 돌아봐도 마을 곳곳에 꽃을 심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부터 김장 나눔, 삼계탕 봉사 같은 소외계층 지원, 독서 문화운동과 청년 조직 육성까지 이들의 손길은 지역 사회 구석구석에 닿아 있었다. 그 모든 활동이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하나다. 예산이나 조직의 힘에 기어 앞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진심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바람 또한 소박하지만 구체적이다. 최인순 부녀회장은 직접 담근 고추장을 지역 어르신들께 나누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다. 정성이 담긴 먹거리 하나가 어르신들의 밥상을 한결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손효택 직장·공장협의회장은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울산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른 지역의 좋은 경험을



배식봉사 중인 직장·공장협의회회원들

빌려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활동을 일궈내겠다는 구상이다. 부녀회와 직장·공장협의회가 그리는 미래 방향은 서로 일치한다.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울산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사각지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세밀하게 살피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다. 기존의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되 더 많은 세대, 더 다양한 이웃이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우리끼리의 열정'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 울산 남구새마을회가 내딛는 다음 발자국이다. 오늘날 '새마을'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이어지는 활동 속에서, 울산 남구새마을회는 지역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이웃으로 남기를 꿈꾼다. 그렇게 이른 아침 시작된 울산 남구새마을회의 오늘도 따뜻한 한 끼를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소중한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최인순 회장

손효택 회장

### 청년조직 활성화



청년새마을연대 2개 조직(새로이, 피어나) 회원 150명이 지역아동센터 빵나눔, 재능기부사업,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독서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지역주민의 독서 참여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새마을작은도서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기행, 독서토론회, 방학특강, 새마을문고 소식지 발행 등 지역 내 독서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 새마을의 새로운 좌표를 그린다

## 제2기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

2026년, 지역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변화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전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 제2기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그렇게 새로운 뜻을 올렸다.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좌표를 그리고 있는 이들은, 지역 성장을 돕는 든든한 '코치'이자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처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을 동력 삼아 더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글 장희주 사진 전승민



### 지역을 빛낸 진심, 전국을 향해 나아가다

**Q 제2기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으로 당선된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심경 회장** | 큰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에서 지역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온 경험을 통해 '지역이 빛나야 전국이 강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전국에서도 꼭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수 부회장** |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과 전국의 현안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도 큼니다. 상호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해웅 부회장** |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장에 이어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부회장직까지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전국과 경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뛰겠습니다.

**Q 새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 **이심경 회장** | 어머니와 이모께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대학 시절부터 새마을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결정적 계기는 2023년에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장직을 맡으면서였는데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 같아요.
- **김성수 부회장** | 2024년 대구 달성군 다사읍새마을협의회 가입을 계기로 청년연합회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 **제해웅 부회장** | 2023년, 경남의령군지회장님의 권유로 청년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기도 했지만 활동을 이어가면서 새마을운동이 가진 매력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의 지평을 계속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심경 회장

**Q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 **이심경 회장** | 울산에서 청년새마을을 활동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발로 뛰면서 하나 하나 설득해 나갔던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의지가 구조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 **김성수 부회장** | 작년 대구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서 이벤트 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생업으로 하는 '이벤트' 역량을 살려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고 보람 차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 **제해웅 부회장** | 새마을해외봉사단으로 라오스에 다녀왔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아이들과 만났던 순간까지 하나하나 다 소중했는데요. 특히 헤어질 때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던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경을 넘어선 깊은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Q** 2026년, 회장단이 그려나갈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의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 **이심경 회장** |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를 '코치' 같은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거죠. 전국 단위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빛나는 구조, 연결된 봉사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성수 부회장** | 올해는 회장단과 지역 청년들이 꾸준히 소통하면서 '새마을'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 간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대구 남구에서 시작된 활동 지원 조례를 대구 전역으로 확대해 청년새마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제해웅 부회장** | 이심경 회장께서 강조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청년새마을연합회만의 '시그니처 사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선배 지도자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이어온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청년은 대표 사업이 아직 부족합니다.



제해웅 부회장

문고 독서경진대회나 부녀회의 김장봉사처럼 청년새마을만의 색깔을 담은 사업을 발굴해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이런 청사진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심경 회장** |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전 세대를 잇는 중간 세대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실행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균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수 부회장** |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세대 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잇는 연결을 통해 조직 전체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제해웅 부회장** | 선배 지도자분들께서 만들어오신 기반 위에서, 청년들만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청년새마을의 역할과 비중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성수 부회장

**Q**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이심경 회장** |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매력은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결과까지 만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변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 **김성수 부회장** | 고립이나 은둔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는 새마을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메시지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해웅 부회장** | 3년 동안 활동하며 가장 크게 느낀 매력은 '사람'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새마을정신의 매력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협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을 이야기해주세요.

● **이심경 회장** | 무엇보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장교 시절 '보고는 정확하게, 결정은 책임 있게, 과정은 투명하게'라는 원칙을 배웠는데, 이 기준을 새마을운동에도 그대로 녹여내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이 스스로 빛나고 그 힘이 모여 전국이 강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 **김성수 부회장** | 과거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과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으면 해요. 제가 있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더 나아가 세계로까지 뻗어나가는 멋진 청년새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 **제해웅 부회장** | 부회장이라는 역할을 맡은 만큼 그 책임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지난 3년과 같이,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그 결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봉사를 시작으로  
아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면,  
아기도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에도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봉사로 세상을 배우는 모녀의 따뜻한 성장기

### 심상희 대전 중구부녀회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대전 중구부녀회 심상희 회원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중촌동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있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그의 가족이 더 많은 사랑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병구

#### 봉사를 통해 함께 자란 모녀의 시간

인터뷰를 위해 찾은 중촌동 요술가위 미용실은 가게 이름처럼 설렘이 가득한 공간이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올해로 10년째 중구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상희 회원과 그의 ‘깜짝지’ 딸 양민영 씨가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년 전, 고객으로 오신 이혜숙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웃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봉사를 이어가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그동안 함께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회장님을 따라 새마을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나눔의 가치를 말로만 가르치기보다는 몸소 체험하며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현장

에서 도움받는 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아이가 더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원을 재활용하며 마음을 잇다

두 사람은 중구부녀회의 일원으로 환경정화 활동, 김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3R 자원재활용 운동이다.

“우리가 쉽게 버렸던 옷이나 페트병이 사실은 모두 자원이라고요. 하나하나 모아 무게를 달아 재활용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도 새마을운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페트병 라벨을 떼는 작업도 하고, 거리 환경정화 활동과 헌 옷 정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봉사 현장에 참여해 온 민영 씨는



어느 곳에서든 참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중구부녀회 회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오후에 진행된 자원 재활용 현장에서도 이모들과 엄마와 나란히 앉아 아무진 손길로 페트병 라벨을 떼고 빈 병을 압착하는 작업을 척척 해낸다. 김장 봉사처럼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이모들에게 피로회복제를 나눠주며 나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에 마음을 더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정을 쌓은 중구부녀회 회원들은 살뜰히 챙겨주는 이모이자,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다.

### 아이와 함께 배운 나눔의 가치

심 회원은 다른 봉사활동 현장에서도 많은 것을 얻었지만, 새마을부녀회 활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엄마의 마음'이다. 부녀회원 대부분이 자녀를 둔 엄마이기에, 그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더 크게 품어준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밝고 적극적이라 여기저기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중구부녀회에서는 아이의 성향을 잘 알아, 좋은 활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불러주세요. 사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늘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와 민영이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10년의 시간은 두 사람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봉사를 통해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몸소 깨닫게 된 민영씨는 몸이 불편하고 힘든 순간에도 먼저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모와 같은 중구부녀회 회원들과 함께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더불어 타인과 어울리는 법도 배웠다고 한다.

엄마 역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성장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외형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엄마의 힘은 뭐다?'라고 물으면, 민영이는 항상 '나'라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줍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성장하고 더 넓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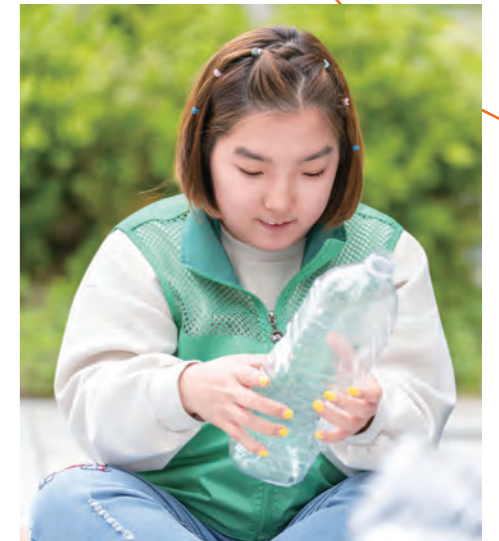
### 작은 손길이 만든 큰 변화, 봉사로 이어진 성장

심상희 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그 덕분에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 여러 상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고 강조한다.

"만약 혼자만의 길이었다면 저는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중구부녀회 분들이 긴 시간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 봉사도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추운 날에는 김장하고, 더운 날에는 무거운 헌 옷을 함께 날랐습니다. 그 과정은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고 함께해준 중구부녀회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영 씨에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중구부녀회 이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머리 위로 큰 하트를 그리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모,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라고. 힘찬 대답을 들은 중구부녀회 회원들도 저마다 하트를 그리며 화답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심 회원은 자신과 같이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아이는 기다려주면 충분히 성장하고, 부모가 단단하게 나아갈 때 아이들도 함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



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활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고, 무엇보다 새마을회원분들은 중구부녀회 회원들처럼 늘 기다려주시고 아이와 함께 소통해주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시작으로 아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면,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에도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트병 수거 활동



# 수국 향기 따라 흐르는 고래의 노래 울산 장생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 도시로 자리 잡기 훨씬 이전, 울산은 바다와 고래가 숨 쉬던 도시였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람과 고래의 인연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를 넘어, 시간의 깊은 결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파도 위를 유영하던 거대한 생명과 그것을 바라보던 인간의 시선은 서로를 기억하며, 시대를 건너 또 다른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울산은 지금도 오래된 기억 위에 새로운 신화를 한 겹씩 덧입히며 살아 숨 쉬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콘텐츠랩 박장용



고래조각정원

## 인류 최초의 고래사냥 기록 울산 반구대암각화

오늘날 고래는 신비의 대상이자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지만,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울산 사람들에게 고래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었다. 오늘날 국내 최대의 공업 도시로 알려진 울산은 산업화 이전 국내 최대 규모의 포경 산업 도시로서 번성했던 곳이다. 1899년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는 포경 기지로 장생포를 지정하면서, 울산은 고래잡이의 전진기지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 장생포 일대는 고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울산과 고래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 최초의 고래 사냥 기록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반구대암각화에는 귀신고래, 흑등고래, 긴수염고래 등 다양한 고래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살을 맞은 고래, 여러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사냥에 나서는 장면 등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들도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암각화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협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유튜브에서 '송창식-고래사냥' 듣기



## 송창식 - 고래사냥

동해바다로 고래를 찾아 떠나겠다는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은 고래도시 장생포를 떠올리게 한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울산과 고래의 인연은 그 모습을 바꿔가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김지호

선사시대 울산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로 나아가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서 고래를 사냥하고, 이를 통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며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다. 고래는 단순한 사냥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존재이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매개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 울산이 지닌 고래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고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울산 남구 장생포항은 한때 고래잡이로 이름을 떨쳤다. 고래잡이가 전성기를 이룬 1970년대 말에는 20여 척의 포경선과 1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상업포경 금지를 결정하면서 고래잡이

가 중단되고 장생포는 점점 쇠퇴하였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더이상 포경선이 드나들지 않지만 장생포는 여전히 고래의 도시다.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 박물관인 장생포고래박물관을 시작으로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등 고래의 생태와 문화를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고래관광 인프라를 갖춘 테마 관광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고래와 인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먼저 거대한 고래의 골격에 압도당하고, 고래잡이의 과정을 재현한 전시를 통해 그 당시의 고래산업의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고래와 함께 번성하고, 또 저물어버린 고래산업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인식과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준다. 고래의 과거를 만나봤다면, 이제 살아 있는 고래를 만나볼 차례다. 장생포고래박물관 바로 옆에 자리잡은 고래생태체험관은 유적으로 가득했던 박물관과 달리 살아 있는 해양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생물을 직접 만나보고, 또 돌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다. 마치 바닷속을 탐험하는 듯한 해저터널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다.

### 바다빛과 꽃빛이 함께 일렁이는

#### 장생포 고래마을

울산의 장생포옛마을은 실제로 고래잡이가 이루어지던 삶의 터전을 역사와 추억으로 되살려 이야기를 건넨다. 변화했던 장생포 고래잡이 어촌의 옛 모습을 재현한 골목에서는 당시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골목마다 정겨운 간판과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 짙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아마 그 시절, 거친 바다에서 고래와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은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고된 일상을 씻어냈을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신화가 아닌, 살아 숨 쉬는 고래를 잡으러 동해로 나갔을 것이다.

이곳의 매력은 계절이 더해질 때 더욱 빛난다. 초여름 장생포 일대는 화사한 수국으로 물든다. 언덕과 산책로를 따라 가득 피어난 수국은 마치 바다와 경쟁하듯 온 마을을 푸른빛

으로 채운다. 바다의 깊은 청색 위에 보라색과 분홍색의 수국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은 장생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면 장생포에는 수국이 가득 피어날 것이다. 수국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고래의 이야기가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 여행 Tip

**제5회 울산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 2026년 6월 19일(금) ~ 6월 28일(일)  
 📍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개막식 6월 19일(금) 19:30

# 꽃가루 알레르기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잎에 마음도 절로 설렌다. 내내 설레기만 하면 좋겠지만, 봄날이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꽃가루다. 맘껏 꽃놀이를 즐기기도 전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함이 먼저 걱정된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완전한 봄을 만끽해보자.

글 편집실



## 꽃가루 알레르기의 범인은?

집먼지 진드기, 반려동물과 함께 꽃가루는 우리나라 국민이 앓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원인 물질 중 하나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면역 시스템이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겨우내 잠들어 있던 식물이 깨어나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봄철이면 대량의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모든 꽃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계절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은 따로 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무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 등이 있다. 바로 바람을 매개로 꽃가루를 수분하는 풍매화들이다. 작고 건조한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사람들이 노출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나비나 벌 같은 곤충을

통해 수분하는 진달래, 벚꽃 같은 충매화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 증상부터 예방까지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흔히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비염 증상과 결막염 증상 등이 있다. 또 심할 경우 호흡곤란과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봄철 환절기마다 감기 증상이 반복된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의심해볼 수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꽃가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미리 확인하고 꽃가루가 심하지 않을 때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한다면 꽃가루 흡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이나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해 꽃가루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 귀가할 때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 실내로 꽃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옷을 던 후 들어가고, 현관에 외투 보관 상자를 두는 것도 집안에 꽃가루 유입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옷을 바로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준다.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 침구에 꽃가루가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실내 관리부터 치료까지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실내 환경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꽃가루 농도가 낮은 시간을 선택해 진행하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꽃가루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침구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60℃ 이상의

온도로 세탁한다.

하지만 생활습관 관리로도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상이하여 병·의원을 방문해 꽃가루를 포함한 알레르기 동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계절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질환으로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원인 물질을 이해하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한다면 증상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꽃가루 농도를 확인해 외출을 조절하고, 위생 관리와 실내 환경 개선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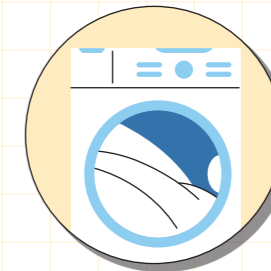
## ○ 꽃가루 알레르기 관리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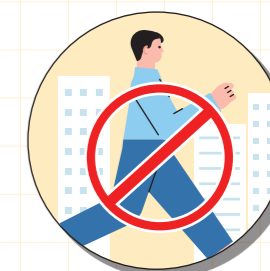
창문을 닫고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주기적으로 실내를 청소합니다.



침구류는 주 1회 이상 온수로 세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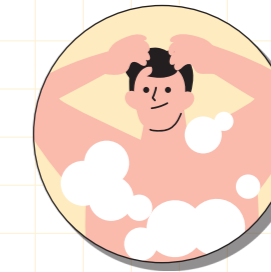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시기에는 야외 활동을 줄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귀가 시 옷을 털고, 바로 손을 씻습니다.



외출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자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새마을 50화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녹색 새마을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실천 2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7일 중앙회 일원에서 자작나무 묘목 3,000 그루를 심으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6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

새마을지도자중앙부녀회(회장 김정임)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중앙연수원에서 '2026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중앙 및 시도, 시군구 부녀회장 등 2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2025 부녀 종합평가는 전라남도도가 최우수 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최우수 시군구로 선정됐다.



주한 잠비아 대사 내방

지난 4월 8일, 앤드류 벤투지니 반다(Andrew Bwezani Banda) 주한 잠비아 대사가 중앙회를 방문해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앤드류 벤투지니 반다 대사는 최형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사례를 공유하며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파푸아뉴기니 지방정부부 장관 내방

지난 4월 29일, 소로이 에오에(Soroi Eoe) 파푸아뉴기니 지방정부부 장관이 중앙회를 방문해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광림 중앙회장과 소로이 에오에 장관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파푸아뉴기니의 자생적 농촌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

서울청년새마을연합회 조직활성화 논의

서울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장유리나)는 지난 4월 4일 시 새마을회관에서 18개 구 연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타 토의로 각 구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배가 및 조직 운영,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과정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틀간 시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이날 부산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청년새마을연합회는 탄소중립 특강과 강의 시연을 통해 지역 초·중학교 현장에 파견될 전문 강사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백옥자 회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실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 전개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4월 15일 공평네거리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한편,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선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자들은 가두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하절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인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다!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

인천시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군·구 부녀회장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사파 갯갯마을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여성 리더 중심의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촌새마을운동 확대와 글로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새마을회&서영대학교 업무협약식 체결**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와 서영대학교(총장 김정수)가 지난 3월 24일 서영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으로 광주 지역발전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류재선 회장은 “해외 협력사업, 취업연계프로그램, 새마을지도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역량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화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울산바다클렌징**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4월 24일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및 제16회 새마을의 날을 맞아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울바클(울산바다클렌징) 해양쓰레기 대청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공자 표창과 새마을기념장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왕암공원 해안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약 2톤을 수거해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2026 전국회장단 정책연찬 참석**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 1박 2일간 중앙회에서 열린 ‘2026 전국회장단 정책연찬’에 참가했다. 이번 정책연찬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미래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새마을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캄보디아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3월 26일 캄보디아 캄퐁 끄라비에 마을에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김원중 직장회장과 강정욱 문고회장을 비롯한 시·군 직장·문고회장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교실 바닥 보수와 교육교구 및 그림책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



**2026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와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정윤조)는 지난 3월 31일 호텔 선샤인 파라다이스 홀에서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해 대전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신입 시연합회장 및 연대회장 인준서가 수여됐으며,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의 실천 다짐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파주남북협력센터에서 소나무 180그루와 고성평화양묘장에서 잣나무 1,190그루 등 총 1,370그루 묘목을 지원받아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했다. 80여 명의 지도자들은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새마을돌봄 희망노(老)을 워크숍**  
 강원도부녀회(회장 전미용)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용평리조트에서 ‘2026 강원 새마을부녀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마을돌봄 희망노(老)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노(老)을 사업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사회안전망 활동이다.



**꿈지원사업 ‘지구를 위한 초록친구만들기’**  
 직장·공장충청남도협의회(회장 이현주)는 지난 4월 7일 당진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아이들은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며 정서적 안정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26 전북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13일 도 회의실에서 '2026 전북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2025 사업실적 보고와 2026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신임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박수연 신임 회장은 "청년이 앞장서는 젊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변화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2026 임시총회 개최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지난 4월 3일 도 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6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상해 (주진덕 건설 대표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단독 후보로 등록된 이상해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회장은 "조직 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경북새마을운동의 안정과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제주도부녀회(회장 홍경애)는 지난 4월 2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 간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녀회장과 다문화가족 여성이 '친정엄마와 딸'로 인연을 맺는 결연 멘토활동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제공했다.



### 비상경제 대응 실천-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4월 24일 협의회(회장 마영휘)와 부녀회(회장 서영미) 등 새마을지도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구 구기동 세검정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유가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약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홍보했다.



### 10만 그루 나무심기·우수 농산물 알리기 팸투어 추진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1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올해에는 자작나무, 모과나무, 체리나무 등 총 2만 2천여 그루를 식목일 기간에 중점적으로 심으며, 지역 환경보전과 생태 회복에 기여했다. 또 '2026 전남 우수농산물 알리기 팸투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 비상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최만환)는 지난 4월 16일 창원시 명곡광장 일원에서 비상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절약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동참, 대기전력 차단,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 5대 핵심 수칙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광고주를 모십니다

매거진 '새벽종'과 함께하는 순간,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로 문의하세요.

031-620-2372, 2381

새마을운동 중앙회

새벽종

광고주 모집

세



#어린이독서활동 #작은도서관프로그램 #새마을문고운영

### 서울 중구지회 그림책으로 마음알기

- 무슨 일을 했나요?**
-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마음 이해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정서발달 지원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 어떻게 했나요?**
- 그림책 읽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감정 이해와 공감 능력 향상을 돕는 독서활동 진행
  - 생활밀착형 아동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강화

- Point**
- 어린이 대상 정서공감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 기반 지역밀착형 문고 활동 추진

대



#학업격려 #이웃사랑실천 #따뜻한공동체

### 대구 달서구새마을회 사랑의 장학금 전달

- 무슨 일을 했나요?**
- 직장·공장협의회에서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 어떻게 했나요?**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반도체메이스터고등학교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1인당 10만 원) 지급
  - 학업 격려 및 새마을단체 이미지 제고

- Point**
- 소외된 학생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고립감 해소
  - 문화상품권을 통한 독서 권장 및 학업 격려

인



#어르신배식봉사 #이웃사랑실천 #건강새마을

### 서울 서초구지회

-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어르신들께 배식 봉사 실시
- 어떻게 했나요?**
- 부녀회 임원 중심으로 배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봉사활동 전개
  - 복지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 실천

- Point**
-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 지원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탄소중립실천 #미시량해변정화 #내고장새단장꽃심기

### 인천 중구새마을회 해안정화 및 꽃심기 활동

- 무슨 일을 했나요?**
-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위한 해안정화 활동 전개
  - 환경정비를 통한 내 고장 사랑 실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어떻게 했나요?**
- 미시량 해변가 쓰레기 수거 및 봄맞이꽃심기 활동 추진

- Point**
- 우리 동네 환경정화 활동으로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 고취
  - 해안정화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운동 고양

광



#봄맞이대청소 #환경정비 #쾌적한거리

### 부산 동구새마을회 봄맞이 동네 환경정비

- 무슨 일을 했나요?**
-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
  - 마을 청소 사각지대 정화활동 전개
- 어떻게 했나요?**
- 협의회와 부녀회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합동 정화 활동 전개
  - 도로변과 골목길 등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

- Point**
- 봄맞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이미지 강화 및 애향심 고취
  -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 유지



#탄소중립실천 #아나바다 #기부천사

### 광주 동구새마을회 골라골라! 기부천사가 되어주세요

- 무슨 일을 했나요?**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옷, 가방, 신발 등 기부 활성화
- 어떻게 했나요?**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나눔장터 유상(1,000원) 판매 운영
  - 판매 수익금을 온기나눔 재원으로 활용

- Point**
-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눔으로써 선순환 구조 조성
  - 자발적인 기부 문화 활성화

부



### 대전 유성구새마을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 무슨 일을 했나요?

- 봄맞이 하천 주변 '줍깅데이' 추진
- 녹색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전개

####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연대, 대학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하천 환경정화 활동 참여
- 매년 상·하반기 하천 청소, 무단 투기된 폐기물은 구청과 협의 후 수거

#### Point

- 깨끗한 지역 만들기과 기후변화 대응 실천 기여
- 청년·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새마을운동

#환경정화 #깨끗한 하천

#녹색새마을



### 울산 동구새마을회 희망의 나무심기

####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염포산에 아름다운 휴식 공간 마련
- 산림의 환경적 가치를 높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분위기 조성

#### 어떻게 했나요?

- 동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염포산 등산로에 철쭉 16,000그루 심기
- 동별 관리구역 설정 체계적인 사후관리 실시

#### Point

- 기후 위기 시대, 새마을이 앞장서는 초록빛 발걸음
-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 구축

#기후변화대응 #나무심기

#탄소중립실천



### 경기 여주시새마을회 기후위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 무슨 일을 했나요?

- 에너지절약 공동약속 캠페인 실시

#### 어떻게 했나요?

- 한반도 평화공존 나무심기 행사 후 에너지절약 공동 참여 캠페인 전개

#### Point

-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캠페인 확산 및 생활 속 실천 분위기 조성

#탄소저감 #에너지절약

#캠페인



### 경기 연천군새마을회 IBK 참좋은 사랑의 밥차

####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어르신 300여 명 대상 무료 급식 제공

#### 어떻게 했나요?

-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연천군 전역에서 사랑의 밥차 정기 (총 20회) 운영
- 새마을지도자들이 음식 조리 및 배식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봉사활동 전개

#### Point

- 지역사회 무료급식 나눔사업 운영

#사랑의밥차 #기업지역활동후원

#무료급식



### 강원 인제군새마을회 2026년 세계물의날 기념행사

#### 무슨 일을 했나요?

- 세계물의날 기념행사 개최
- EM흙공, EM수 방류를 통한 하천 정화와 녹색새마을운동 전개

#### 어떻게 했나요?

- 산책길 및 하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 실시
- 생활 속 물 절약 및 환경오염 줄이기 실천 캠페인

#### Point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화활동 추진
- 재활용 박스를 활용한 캠페인 보드 제작과 주민 참여 유도
- 환경 보호 의식 확산과 녹색마을 공동체 실현에 기여

#세계물의날 #하천정화활동

#녹색새마을



### 충북 청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실천 반려식물나눔

#### 무슨 일을 했나요?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 활동

#### 어떻게 했나요?

- 실내에서도 잘 자라며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반려식물 나눔
- 소외계층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여 정서적 안정 도모

#### Point

- 1인가구의 단조로운 일상에 생기를 부여
- 식물 나눔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반려식물나눔 #탄소중립실천

#공동체문화조성



#식목일 #나무식재  
#환경사랑

### 충남 예산군새마을회 봄맞이 나무심기

#### 무슨 일을 했나요?

- 봄맞이 나무심기 활동 전개로 생활 속 환경실천 앞장

#### 어떻게 했나요?

- 예산읍 궁평리와 대흥면 하탄방리에 소나무 1,200그루, 편백나무 1,200그루 심기

#### Point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연을 가꾸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 운동



#새마을의날기념 #탄소중립실천  
#나무심기

### 전북 전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 무슨 일을 했나요?

- 제56주년 새마을의 날을 맞아 나무심기 및 꽃잔디 심기
-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공원 유휴공간 활용 경관녹지 조성

#### 어떻게 했나요?

- 전주시새마을회 회원과 전주시대학새마을동아리·청년새마을연대 회원 80여 명 참여
- 꽃잔디와 철쭉 1,600그루 심기

#### Point

- 도심 속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
-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의식 확산



#삼각김밥나눔 #지역공동체실천  
#따뜻한한끼전달

### 전남 영암군새마을회 사랑의 삼각김밥 나눔

#### 무슨 일을 했나요?

- 성장기 학생들의 아침 결식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 따뜻한 한 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 어떻게 했나요?

- 부녀회원들이 직접 삼각김밥을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하여 준비
-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세트 전달

#### Point

- 지역 쌀 활용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상생 실천
- 등굣길 학생들에게 건강한 한 끼와 함께 정서적 유대감 형성



#녹색새마을운동 #아나바다  
#알뜰벼룩장터

### 경북 구미시새마을회 자원 재사용과 근검절약 정신

#### 무슨 일을 했나요?

-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알뜰벼룩장터 운영
- 단순 판매를 넘어 경제활동 체험을 통해 나눔과 소통의 장 마련

#### 어떻게 했나요?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해 아나바다 운동 확산

#### Point

-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청년새마을연대 #세대공감  
#족욕봉사

### 경북 영주시새마을회 찾아가는 행복버스 족욕봉사

#### 무슨 일을 했나요?

- 어르신 대상 족욕봉사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이동형 봉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르신 복지 서비스 제공

#### 어떻게 했나요?

-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확보
- 청년연대 회원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팀 단위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효율성 강화

#### Point

-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소통 강화
- 청년들의 봉사 참여를 통해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 회복



#녹색새마을운동 #아름다운합천만들기  
#봄꽃식재

### 경남 합천군지회 아름다운 합천 가꾸기

#### 무슨 일을 했나요?

- 녹색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합천가꾸기 봄꽃 심기
-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합천읍 초입 새마을 화단과 합천댐 일원 화단 정리 작업
- 비올라, 팬지, 마가렛 등 봄꽃 3종 15,000여 그루 심기

#### Point

- 경관 개선 및 화단 정비
- 상춘객 맞이 꽃길 조성



## 새벽종 독자 의견

〈새벽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벽종〉 2026년 03+04월호



### <빛나는 사람들>

각 지역 회장님들이 새마을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잘 받았습니니다.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회원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잘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힘찬 메시지가 많은 분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황경연



### <청년, 새마을하다>

전국을 잇는 가교로서 청년의 열기를 더할 제5대 회장단의 선출을 축하합니다! 전통에 오늘의 감각을 더해 더 즐겁고 유익적인 연합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할게요. 세 분의 환한 미소처럼 전국 대학가에 기분 좋은 새마을 바람을 일으켜주세요. 응원합니다!

홍성태



### <그 노래, 그 길>

글과 사진만으로도 제천이 품은 봄의 정취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의림지를 따라 걷는 산책길, 탁 트인 청풍호반의 전경, 배론성지의 거룩한 고요까지 더해져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수현



### <소통의 기술>


“정중히 부탁하고, 부드럽게 거절하기”라는 주제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공감 많이 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한 소통이라는 점을 짚어준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조명옥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 새마을운동 56주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

200만 새마을회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